

지역 매아리

# 520개 신규 일자리 창출 되나

## 고창군,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 '박차'

### 정읍 연지동주민센터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전개

연지동주민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원 테이블 원 플라워(1 Table 1 Flower)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경제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꽃가게(화훼농가 포함)를 돕고 일상 속 꽃 생활화 운동을 통해 정서 순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관련해 주민센터는 사무실 책상 하나 당 한 송이의 꽃을 비치해, 지역 내 꽃가게 경영에 도움을 줌은 쾌적하고 화사한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능률 제고는 물론 민원인들에게도 관공서는 딱딱하다는 인상을 대신 밝은 분위기를 전달, 호평받고 있다.

주민센터는 특히 각종 모임이나 서신 등을 통해 각 기관단체들의 참여를 당부하는 등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이끌어 내고 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완화에 불구하고 화해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이 화해산업 활성화를 물론 지역경제,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군 산림면 무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확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신청한 산림면 무림지구가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14일 군에 따르면 '무림지구'는 고창군 산림면 무림리 119-1번지 일원 643필지(45만1,757㎡)로 임리마을과 대강마을의 주거지와 농경지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됐다.

무림지구는 토지의 실제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른 곳이 많고 지적불합치가 복합적으로 산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필요했다.

군은 지난 달 23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 토지소유자 69.8%와 토지면적의 76.9%의 동의를 얻어 전라북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최근 승인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무림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에 부합하는 지적경계가 확정되고, 좌표로 관리되는 디지털 지적이 구축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경계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므로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시, 철도산업농공단지 지정·실시 계획 승인 고시

### 다원시스 전동차 생산 공장 건립 착공 여건 마련

정읍시가 14일 입암면 하부리(노령역) 일원 22만1,861㎡(산업시설 14만3,128㎡, 주거시설 1,757㎡, 지원시설 9,617㎡, 공공시설 6만7,359㎡)에 대한 철도산업 농공단지 지정과 함께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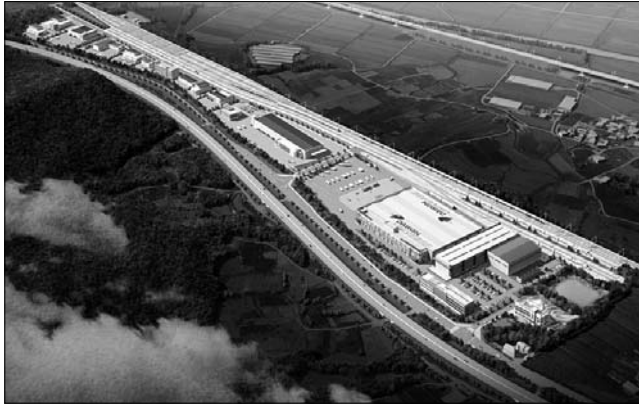
이로써 (주)다원시스의 전동차 생산 공장을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타당성 조사와 농공단지 개발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 전라북도의 신규 농공단지 수요 검증을 거쳐 지방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원안 가결 등을 거친 바 있다"고 밝혔다.

유지업종은 기타 장비 제조업 외 7종으로, 철도산업과 관련된 전동차 완성품 생산 공장과 협력업체들이 입주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농공단지 조성은 2월 말 기준 사실상 완료됐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는 모두 21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5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농공단지 외 기반시설 중 철도 연결 선로사업은 전액 국비인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 포함(확정)됨에 따라 4차선 진입도로는 전라북도에서 지방도 확보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정읍시가 14일 입암면 하부리(노령역) 일원 22만1,861㎡(산업시설 14만3,128㎡, 주거시설 1,757㎡, 지원시설 9,617㎡, 공공시설 6만7,359㎡)에 대한 철도산업 농공단지 지정과 함께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북도 (주)다원시스와 철도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농공단지 지정과 실시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주)다원시스의 전동차 생산 공장 건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해 (주)다원시스는 300억원을 들여 연간 360량 이상의 전동차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전북도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사업의 체험객 숙박시설이 올 9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상하면 강선달관역(신지동, 구시포, 서담마을)에 체험프로그램과 향토음식 개발, 도농교류 이벤트 등 12개 소크트웨어사업에 1억7000만원, 체험객 숙박시설, 농가레스토랑, 판매장 등 하드웨어사업에 28억3000만원 등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체험객 숙박시설은 지상 4층 지하 1층의 연면적 1280.34㎡ 규모로, 2층부터 4층은 15개 숙박시설이, 1층에는

농가레스토랑, 판매장, 다목적회의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숙박시설이 완공되면 숙박 가능인원 90여명과 음식점 이용인원 40명 등 마을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우정 군수는 "체험관광 기반과 숙박시설 구축을 통한 도시민 유입 촉진과 농촌의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로 사람 찾는 농촌을 조성하겠다"며 "숙박·음식·관광이 완비된 체험형 거점마을로 강선달관역이 관광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고창군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순항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지역사회, 치매돌봄이 어렵지 않은 우리가족'의 비전을 갖고 고창군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치매예방에서부터 돌봄까지 맞춤형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부지 내에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연면적 353㎡, 지상 2층 규모로 치매안심센터 확충에 들어갔으며 오는 7월 완공 계획이다.

새로 증축되는 고창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상담실과 조기검진실, 경증치매환자의 단기센터, 치매환자 가족의

정보교환과 휴식 및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가족카페 등의 공간을 갖추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조호물품 지원 등 치매특별환자 1:1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치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기존의 치매상담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난해 12월 우선 개소한 고창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안심센터 기능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7명을 신규 채용하여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치매파트너 교육사업, 치매환자 실종발견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등 치매예방관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고창=김영식기자

## 부안군, 도서지역 국가안전대진단 현장행정 추진

### 파장금항·치도항 주변·정박 시설 등 점검·사고 발생 주의 당부

부안군은 도서지역에서 사전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부터 환자 수송까지 선박이나 헬기를 이용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미미한 사고가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14일 도서지역인 위도 면의 항과 포구, 사업장 관광지 주변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현장행정을 안전총괄과장(이재원)을 단장으로 부안해안경찰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과 민관 합동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도서지역에서 사전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부터 환자 수송까지 선박이나 헬기를 이용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미미한 사고가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도 주민 뿐만 아니라 위도 면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선의 안전장비, 시설 등을 점검하고 파장금항과 치도항 주변의 시설과 정박시설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여 안전점검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 본격적인 낚시철을 맞아 많은 낚시인들이 위도 칠산 앞바다로 몰려들고 있어 낚시 어선에 대하여 안전장비와 승선인원 비상연락체계 등을 점검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선인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반드시 교육하도록 했다.

부안군은 새로운 해양관광수요 창출로 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제공하려고 위도 낚시항 조성사업을 지난 2016년에 착공하여 201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48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도면 치도항을 지난해 6월28일에 해일위험지구 다등급으로 지정하여 2018년에 재해위험해안지구 정비사업을 38억 원을 투자하여 호안화장 및 파리매 설치사업 실시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 정읍한우 전문 판매장 개장

정읍시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이 14일 북면 한교리 북면초등학교 입구에 축산물 판매장과 식당을 갖춘 정읍한우 전문 판매장을 열었다.

한우 판매장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마련됐다.

보조금 3억원과 융자 3억원, 자부담 4억 모두 10억원이 투입된 한우 판매장은 건축 면적 770㎡의 2층 건물이다. 200여석 규모의 연회실과 정육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한우 판매장 개장에 따라 한우 농가는 신지 가격과 연동한 직거래 판매로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반을 갖추게 됐고, 소비자들은 가성비와 뛰어난 품질을 갖춘 정읍한우고기를 맛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한우 판매장 개장으로 농가가 직접 기본 한우를 직접 가공하고 판매하는 자가 판매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기존의 유통 구조가 개

선돼 값싸다고 인식되고 있는 한우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내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통한 판매량 증가로 정읍 축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 한양수 대표는 "한우 판매장 개장을 계기로 최상급 품질의 한우 생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곳을 정읍시민은 물론 전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장식에는 전북도의회 이학수 의원과 장학수 의원,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을 비롯 시의회 의원, 정읍시 전군 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과 한양수 대표를 비롯한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 조합원, 축산 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Premium Ohdi Wine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